어린이 한자교실 강사 양성

포천문화원 땡땡땡 실버 문화학교 開講

포천문화원은 6월11일 2008년도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어린이 한자교실 강사 양성반 개강식을 개최했다.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6월 11일 수강생 및 문화원 임·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화에 대비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건강하고 생산적인 실버문화를 조성하기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추진단에서 주최하고 포천문화원에서 주관하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후원하는 2008년도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어린이 한자교실 강사 양성반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개강식에서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실버문화학교에 참여 해주신 어르신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 창출의 기회 와 생활의 활력이 되도록 문화원에서 적극 노력 할 것이며 교육을 통해 좋은 결과와 보람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실버문화학교 운영은 2006년도부터 한자지식과 강의경험이 많은 노인들에게 강사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게 함으로서 노인세대와 어린세대간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노년세대 은퇴 후 시간을 지역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후배양성에 힘쓰고 더불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여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 해주고자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과정에는 퇴직 교육자 및 공직자 등 강의 경험이 많은 수강생들과 포천관내 각 급 학교에서 방과 후 한자 강의를 맡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등록해 실버문화학교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6월11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11월 중순까지 일반강의와 특강 실시 후 현장체험 등을 통해 강의 능력을 키우게 되며 수료 후 에는 각 급 학교 및 단체 등에 적극 홍보하여 한자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문화학교 수료생 중심 문화예술단 창단공연

포천문화원, 가산면 금현리 소재 자혜의 집에서

포천문화원은 6월14일 가산면 금현리에 소재한 양로시설인 자혜의 집에서 시설입소 어르신, 문화원 임원과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 가운데 포천문화원 문화예술단 창단 기념공연을 가졌다.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6월 14일 가산면 금현리에 소재한 양로시설인 자혜의 집에서 시설입소 어르신, 문화원 임원과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 가운데 포천문화원 문화예술단 창단 기념공연을 가졌다.

포천문화예술단은 포천문화원에서 문화학교 수강생 및 수료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 등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창단한 예술봉사단체로 사물놀이, 우리 춤 체조, 기타교실, 가야금, 민요교실, 대금, 노래교실, 색스폰 등 8개팀 71명의 봉사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양로원, 장애인 시설 등 불우시설 위문 공연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

이날 기념공연은 양로원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 공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포천문화원 문화예술단에서 사물놀이, 우리춤 체조, 가야금병창, 경기민요 의 위문공연을 실시했다.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도 포천문화원 문화학교의 문화예술단 위문공연을 더욱 활성화 하여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이날 창단 공연을 통해 문화예술단원들은 개인이 취미생활로 배우고 익힌 문화예술 활용을 문화예술을 많이 접하지 못하는 불우한 이웃을 위해 봉사 할 수 있다는데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104

밤에 찾아온 처녀의 종아리를 쳐 돌려보내다

리효종
한국한시협회 포천지회장

심수경은 선조 때의 이름난 재상이었다. 어렸을 때 그는 자태와 용모가 무척 아름다웠다. 그가 남촌에 살 때 이웃과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이웃집이 바로 재상댁이었다.

어느 날 밤, 그는 홀로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읽고 있었는데 홀연히 한 처녀가 나타나 문을 열고 들어와 책상 옆에 앉았다.

그가 읽던 책을 다 읽고 나서 처녀를 향해 말했다.

"그대는 어느 집 따님이기에 늦은 밤에 나를 찾아왔소?"

"저는 담 너머에 있는 집의 딸입니다. 도련님의 책 읽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동하여 저도 모르게 이곳까지 따라왔습니다."

처녀의 얘기를 들은 심수경이 정색을 하고는 꾸짖었다.

"낭자는 재상 댁 규수로서 남몰래 담 구멍으로 엿보다가 이렇게 부끄러움도 모르고 남정네를 찾아왔으니 마땅히 종아리를 맞아야겠소. 문 밖으로 나가 나뭇가지를 꺾어 오시오!"

처녀는 몹시 부끄러워하며 즉시 밖으로 나가 나뭇가지를 꺾어 가지고 왔다. 그는 처녀의 종아리를 때리며 훈계한 다음 돌아가게 했다. 처녀는 부끄러워하면서 돌아갔다.

뒷날 그가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에 올라 재상이 되었을 때였다. 그때 그는 동인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었는데, 특히 두 명의 형제가 동인의 주동자가 되어 준열하게 그를 탄핵하였다.

그들 형제는 사간원과 사헌부에 각각 몸담고 있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집에 돌아와 밤늦도록 심수경을 탄핵하는 상소문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어머니가 말했다.

"네가 탄핵하려는 사람이 누구냐?"

"심수경입니다."

그의 이름을 들은 어머니가 아들을 말리며 말했다.

"안된다. 그 사람은 군자이니라."

"어머니께서 그걸 어찌 아십니까?"

어머니는 오랫동안 한숨을 내쉬다가 이윽고 처녀 적에 심수경으로부터 종아리를 맞았던 일을 말해 주었다. 그로 인해 그 형제는 감히 심수경을 탄핵하지 못했다.

심수경(沈守慶)

1516년(중종 11)~1599년(선조 32).

본관은 풍산(豊山)이며 자는 희안(希安). 호는 청천당(聽天堂)이다. 1546년(명종 1) 식년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후 직제학을 지내고 대사헌과 팔도관찰사를 지냈으며, 청백리로 녹선되었다. 1590년(선조 23) 우의정에 올랐다. 문장과 서예에도 능했으며, 저서로 『청천당 시집』, 『청천당 유한록(聽天堂 遺閑錄)』 등이 있다.

위의 이야기는 편자 미상의 『양은천미』에 상진의 일화로 소개되어 있고, 조광조에게도 비슷한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또 김안국의 일화에도 처녀에게 매를 친 이야기가 있다.

뮤지컬 이야기 #53

암울한 교육 현실과 피노키오의 죽음(2)

뮤지컬 애니메이션 〈피노키오〉를 보면 이런 노래가 나온다. 피노키오의 양심으로 나오는 귀뚜라미가 피노키오에게 불러주는 노래이다.

"요정이 말했지. 언제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피노키오, 진짜 소년이 되고 싶지? 세상은 유혹이 가득해. 그렇지만 언제나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해. 유혹에 빠져 마음이 흔들릴 때도 올바른 길로 가다 미끄러질 때도 휘파람을 불어. 내가 도와줄게. 휘파람이 안 되면 이름을 불러."

그렇지만 피노키오는 유혹에 넘어간다. 학교에 가는 피노키오를 여우와 고양이가 꼬드겨 배우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피노키오를 팔아넘긴다. 여우가 노래한다. "학교에 간다고? 성공의 지름길이 있는데 모르는구나. 연예계를 모른단 말이야?" 연예계가 뭔지도 모르는 피노키오. 단지 사람들이 웃고 박수를 쳐준다는 것이 좋을 뿐인 피노키오. 결국 돈과 인기가 뭔지도 모르는 단순한 피노키오는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순간 요정이 나타나 피노키오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게 도움을 준다.

그렇다면 유혹에 빠진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극적인 순간처럼 요정이 나타나줄 수 있는가. 양심이 뭔지 유혹이 뭔지 가르쳐주고 끌어줄 수 있는 교육환경이 구축되어 있는가.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과도한 교육 열기는 결국 아이들에게 학교성적과 특정 고등학교와 대학에 대한 강박관념만을 심어주고 있다. 물론 인성교육을 중요시하는 유치원과 학교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당국과 교사의 힘만으론 역부족일 수 있다. 돈과 인기가 뭔지도 모르는 피노키오처럼, 그 댓가가 뭔지도 모르는 피노키오처럼 우리의 어린아이들도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미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국어를 떼고 기본적인 영어와 한자도 익힌 아이들이 학교 공부에 재미가 있을 턱이 없다. 그런 아이들이 학교보다는 좀 더 재미있는 것을 갈구하고 그걸 찾아 배회하는 것은 가슴 아프지만 당연한 일일 것이다. 잘 알려진 동요 '피노키오'를 들어보면 가사가 황당하기도 하지만 요즘 세태를 잘 반영한 동요라고 생각된다.

"꼭두각시 인형 피노키오 나는 네가 좋구나. 파란 머리 천사 만날 때는 나도 데려가 주렴. 피아노 치고 미술도 하고 영어도 하면 바쁜데, 숙제도 많고 시험도 많고 할 일도 많아 바쁜데,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독서실 가면 바쁜데, 너는 언제나 공부를 하니 말썽장이 피노키오야. 엄마 아빠 꿈속에 오늘밤에 나타나 내 얘기 좀 잘 해줄 수 없겠니. 먹고 싶은 것이랑 놀고 싶은 놀이랑 모두 모두 할 수 있게 해줄래. 먹지 마라, 살찐다, 하지 마라, 나쁘다, 그런 말 좀 하지 않게 해줄래."

이 노래의 작사가는 가사의 내용보다는 단순히 아이들이 동요를 배우면서 사고능력과 정서적인 발달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만들었겠지만 다분히 요즘 아이들의 생각을 잘 반영한 내용이다.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온 학원화된 교육과 시험과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의 아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올해 새로 출범한 정부는 그 어떤 당면과제보다도 우선해서 교육에 관한 과감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가 바뀌면 매번 교육정책이 달라지듯이 당장 눈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니라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이슈화시켜 장기적으로 공론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악습중의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인데 이번에 노출된 교육문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단 대구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노출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산재해 있다. 피노키오 원작처럼 우리의 아이들이 선량하지 못한 외부 유혹에 의해 피노키오처럼 죽어갈 수도 있다. 아니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비참하게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서서히 숨이 끊어져 가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뮤지컬 애니메이션 〈피노키오〉는 1940년에 두 개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다. 오리지널 스코어와 주제가상이다. 주제가 '별님에게 기도할 때(When You Wish Upon A Star)'는 개봉 후에 곧바로 인기를 얻었는데 그 주제가의 가사처럼 적어도 우리의 아이들이 별을 보며 소원을 빌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면 좋겠다. "아름다운 꿈이라면 별님과 함께해요. 별님에게 소원을 빌면 모든 게 이루어질 거예요." 엄마 손을 잡고 광화문에 나와서 그 고사리 같은 손에 촛불을 밝힌 어느 아이의 소망처럼 별님과 다름 아닌 파란요정이 등장하는 해피엔딩이 기다려지는 것이다. 완결판 피노키오의 해피엔딩과 같이 파란요정이 우리의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지 기원해 보며 그 요정은 정부뿐만 아니라 곧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윤우영
(대진대 교수, 연출가)

예/술/칼/럼

이해와 감상

"그날 사내가 서 있던 실내는 불이 환히 켜져 있었다. 비교적 복도가 긴 통로에 사람들이 생각을 기웃거리며 재미있게 호기심을 뒤적거렸다. 갑자기 한 여인의 입에서 빨간 풍선이 터졌다. 작대기처럼 사내는 흩어진 풍선 조각들을 그냥 밟고 지나갔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이는 어느 날 한 사내의 일기장을 훔쳐본 이야기 대목의 일부분이다. 사람은 연극을 위하여 무대에 서지 않는다. 다만 밥을 위해서 들판에 서며, 바다에 나가며, 때로는 사람의 똥지게를 지며 살아지는 것이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은 모두가 그렇고 그렇게 살아간다. 늘 사람의 길에는 함정과 돌부리와 유혹들이 마중 나와 사람보다 앞서가거나 혹은 사람의 옷깃을 꺾기도 한다.

에덴에서 하와는 아담에게 사탄(뱀)의 유혹을 부추겨 신명(神命)을 거역케 했다. 그것이 사람의 원죄(原罪)가 아닌가.

앞서 잠깐 묘사한 일기장속의 사내는 어느 화창한 날에 한 여인으로부터 남근(男根)모양으로 빚어진 찻잔 한 셋트를 선물로 받으며 뒷동산에 봄불을 지른다. 불은 마을로 번져 타들어갈 때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소낙비가 내려서 이내 불은 꺼진다.

이 또한 비록 한 사내의 일기장 속 장면이지만 시적 상상력과 남녀간의 에로스적 본능을 사회적 통념의 거울을 보며 이성적 갈등 구조와 고뇌 속에서 극복해 가는 사내의 냉정과 열정을 인상 깊게 엿들었다. 남의 일기장을 엿듣는 것은 교양 있는 일이 아니지만 내 삶의 막역한 동반자이기에 책임질 수 있다. 그렇다.

때로는 여자가 가정의 빗자루와 그늘로 사는 게 아니라 더러는 밖의 청솔가지를 꺾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싶기도 한가보다. 여자는 가끔 남자의 살갗에 가시를 찔러 붉은 태양이 이글거리는 해변을 기다리는 걸까. 모를 일이다. 나무는 철이 들지 않아도 스스로 껍질을 벗고 입는 순리로 살지만, 사람은 자신의 옷을 자신이 벗기도 하고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누군가가 벗기거나 벗길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감상을 한다.

창작 또한 탈(껍질)을 벗는 일이며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일이기는 하다. 세상사 누가 누구를 까닭 없이 탐할 것이며 누가 누구를 이유 없이 범하겠는가. 항시 원인과 결과는 변명으로 대변되지 않는다. 언제나 옳고 그름은 하늘의 입장이다. 이 또한 세상사에서 경쟁하기 위한 오해와 착각이며 자만과 열등일 수 있으며 오만과 편견이자 공격 과 방어며 나아가 술수다.

세상의 부지런한 농부는 해 걸음에 빈 지게로 돌아오지 않으며 현명한 여인은 개천에서 물을 긷지 않는 법이다. 새는 결코 바람 부는 가지에 집을 지을 지언 정 남의 둥지를 찌르지도 않으며 탐하지도 않는다. 구름이 빛을 가려도 그저 불만하지 않고 더 높은 창공을 향하여 끊임없이 날개 짓을 할 뿐이다. 인간의 예술적 감상과 이해도 이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남의 작품을 이해하기 이전에 자신의 생활을 먼저 보아야 하며 남의 작품을 평가하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먼저 땅에 그려봐야 할 일이다. 예술은 인간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따뜻한 손을 잡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의 발이 땅을 딛고 사람의 머리를 하늘에 두는 천리(天理)다. 누워서 만나는 살결보다 서서 만나는 언어가 인간의 진정한 소통이다. 누워서 부르는 노래는 바닥으로 떨어지지만 서서 부르는 노래는 하늘로 떨어진다.

빛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지만 어둠은 반드시 아래에서 그 아래로 떨어진다. 어둠의 빛에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늙는 것은 빛에 대한 오로지 신앙인 것이다. 인간은 먼저 자신의 양심에 거울을 비춰야 한다.

어쩌면 모든 예술의 이해와 감상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양심에 매스를 대는 일일 것이다. 그때 비로소 창작의 노래는 다시 인간의 꿈이 된다. 신(神)이 창조한 최고의 예술이 인간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안익수 시인
제3의문학 발행인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38)

명사수(名射手) 김처곤(金處坤)

세상에서 하기 힘든 것이 나랏일도 잘하고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땀을 흘리며 일도 하는 삼전(三全)의 인물이라고들 한다.

대개, 벼슬아치들은 고향의 부모를 향처(鄕妻)가 모시게 하고, 자기는 상경(上京)하여 경처(京妻)와 함께, 살며 양반들은 일을 하지 않고 상민들을 시켜 일하는 것을 상례(常例)로 알던 시대가 조선 왕조였기 때문이다.(그렇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 고향에서 벼슬을 하는 분도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내 고향 포천 이동면 연곡리에서 출생한 조선조 무신 김처곤님은 매우 효자였으며 활 잘 쏘는 명사수였고 몸소 논밭을 갈고 농사도 잘 짓는 농사꾼이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친근감과 존경어린 눈으로 바라보게 한다.

조선조 무신 김처곤님은 이동면 연곡리에서 출생하였다.(영조2년:1726년)

초명은 처관(處觀), 자는 중빈(仲濱) 본관은 안산, 연성군 정경의 7세손이다.

영조29년(1753년) 무과에 급제하여 영조41년(1755년) 선전관이 되었으며 훈련원 주부, 판관, 부정, 도사, 경력을 역임하였으며 의금부 도사, 장원서 별제를 거쳐 보성군수를 제수받고 첨지중추부(僉知中樞府)에 이르렀다.

부모를 섬김에 있어 지성을 다하여 섬겼다고 한다. 높은 벼슬에는 큰 뜻을 두지 않고 몸소 밭을 갈고 농사를 지은 인물이었다. 몸소 지은 농산물을 부모님께 직접 봉양하는 효자였던 것이다. 특히, 몸소 냇가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 부모님께 봉양하는 정성을 보였다. 김처곤님은 활을 잘 쏘는 명사수로도 유명하였다고 한다.

봄, 가을로 어전에 나아가 말타고 활쏘기를 하였는데 늘 장원을 하였다고 한다.

어전, 전정 기사(殿庭 騎射)에서는 장원할 때마다 왕으로부터는 '동호(動弧)'를 하사 받았다고 한다.

'동호(動弧)'란 붉은 칠을 한 화살로 활을 잘 쏘는 사람에게 임금님이 하사하는 화살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명사수 사격 승마대회에서 최고의 영예인 하사하시는 임금님의 붉은 화살을 김처곤님이 받았던 것이다.

내 고향 포천에는 청산면 산정리 사정(射亭)을 비롯하여 각지에 전국에서도 유명한 활터가 산재하여 활솜씨를 뽐내고 있다. 이는 김처곤님 같은 명사수의 후예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김처곤 배(金處坤. 盃) 사격대회' 등도 열었으면 어떨까?

'전통 무예 마술대회' 등도 열고 김처곤 님을 길이는 행사도 제안하는 바이다.

'대통령배 김처곤 승마 사격대회'의 현수막이 내 걸리는 날을 기대해 보기로 하자.

초대 漢詩

斯文振作(사문진작)

楊 載 昌
前 포천향교 전교

斯文振作燦吾東(사문진작찬오동) 儒道宣揚四海同(유도선양사해동)
사문의 떨침은 우리 동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유도를 선양하니 그 힘이 사해 밖으로 파급되네.

復禮修身洙泗訓(복례수신수사훈) 崇禮積德洛閩功(숭례적덕락민공)
복례로 몸을 닦으니 이는 공자 맹자의 가르침이며 윤리를 숭상하여 덕을 쌓는 것은 정주학의 영향을 받음이다.

匡扶美俗千年範(광부미속천년범) 善政安民萬歲隆(선정안민만세융)
아름다운 풍속을 널리 바르게 하니 천년을 빛나고 선정을 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니 만년간 융성하겠네.

槿域江山祥運起(근역강산상운기) 必成福祉樂無窮(필성복지락무궁)
근역이 강산에는 상서로운 기운이 일어나는데 복지 사회를 이루니 즐거움이 어찌 다하리오.